

러시아 정부, 극동지역 개발 본격화

1. 극동지역 개황 및 개발 정책

□ 극동지역 개황

- 극동지역은 러시아연방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연해주지구, 하바로프스크 지구, 아무르주, 사할린주, 캄차트카지구 등 9개의 연방주체로 구성되며 러시아연방 전체 영토의 36.1%에 해당하는 광대한 지역임.
- 러시아 극동지역은 한국, 중국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해양을 통해 일본 등 아태지역과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어 철도, 항만 등 대규모 운송망을 통해 아태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의 요충지임.
 - 이미 알려진 대로, 동지역은 원유, 천연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자원을 비롯한 광물자원, 임산자원과 수산자원이 풍부한 천연자원의 보고임.
- 그러나, 러시아의 극동지역의 인구는 약 646만 명으로 러시아 전체 인구의 4.6%에 불과하여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고령화, 노동가능인구 감소 등이 심각한 상황임.
 - 러시아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인구 서베이(잠정치)에 의하면, 극동지역 인구는 2002년에 비해 약 6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- 극동지역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지정학적 요충지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, 인구감소와 열악한 사회 인프라 환경, 부진한 제조업 발전 등으로 인해 경제발전 수준은 러시아 내 최하위권으로 분석됨.



□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정책

-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인구감소와 열악한 경제·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으로 ‘2013년까지 극동·자바이칼 지역 경제·사회 개발 연방 특별프로그램’은 2012년 APEC 정상회의 준비 관련 블라디보스토크시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주요 사업임.
 - 동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의 약 30%가 블라디보스토크시의 개발에 집중적으로 할당되어 있음.
- 2009년 12월에 승인된 ‘2025년까지의 극동·부라티야·자바이칼·이르쿠츠크 지역 사회·경제 발전전략’의 목표는 동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에 편안한 환경을 구축하여 러시아의 평균적인 사회·경제발전 수준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것임.
 - 동 전략은 3단계(1단계: 2009~15년, 2단계: 2016~20년, 3단계: 2021~25년)의 발전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우선순위는 지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 및 지역 차원의 운송·교통·에너지·통신·사회 인프라 개발임.

□ 푸틴, 극동개발에 지속적 관심

-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월 21일 집권 3기를 이끌어 갈 내각 각료 명단을 발표하며 극동개발부(Minist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)를 신설하고 신임장관을 임명함.
- 신설된 극동개발부는 낙후한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고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됨.
- 푸틴 대통령은 극동개발에 관심을 가지며 제 2기 집권기인 2007년에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'2013년까지 극동·자바이칼 지역 경제·사회 개발 연방 특별프로그램'을 마련했고, 2009년 총리 시절에는 ‘2025년까지의 극동·부라티야·자바이칼·이르쿠츠크 지역 사회·경제 발전전략’을 수립한 바 있음.



-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은 국토의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극동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.

2. 극동지역의 외국인투자 및 교역 동향

□ 외국인투자 유입 동향

- 2011년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규모는 99억 570만 달러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나, 러시아 전체 외국인투자 유입실적(1,906억 달러)에서 극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.2%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.
- 지난 수년간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주로 원유·가스 관련 업체들에 의해 특정지역(사할린주 등 자원매장지)과 특정분야(에너지 자원개발)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
 -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, 일본, 영국, 룩셈부르크 등이며 우리나라의 극동 러시아 투자는 연간 1~2% 내외로 미미한 상태임.

□ 교역 동향

- 2011년 중 러시아 극동지역의 대외교역량은 총 3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.4% 증가하며 2010년(53% 증가)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.
 - 수출은 2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.3% 증가했고, 수입은 9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.9% 증가하며 15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.
- 2011년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 교역액은 93.6억 달러(전체 교역액의 27.6% 차지)로 전년 대비 50.2% 급증하며 우리나라가 극동지역 최대교역국으로 부상함.
 - 그 외 주요 교역대상국은 중국(24.9%), 일본(22.9%) 벨기에(6.7%), 미국(2.2%) 등임.
- 러시아 극동지역의 주요 수출품은 원유·천연가스 등 에너지 연료가 전체 수출액의 67%를 차지하며 수산물(8.3%), 목재펠프(4.7%) 등이 뒤를 잇고 있음.



3. 시사점

□ 극동지역 개발 본격화 전망

- 현재 추진중인 극동지역 개발프로그램과 전략은 과거에 비해 정부의 예산지출 규모가 확대되거나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실천의지가 높은 편으로 추진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
- 집권 3기를 시작하는 푸틴 대통령의 극동개발부(장관직) 신설로 앞으로 극동 지역 개발은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보임.

□ 우리나라의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확대 필요

- 러시아 극동지역은 세계적인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중요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략 차원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경제협력 및 투자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.
- 구체적으로는 2009~25년에 걸쳐 3단계로 추진될 '2025년까지의 극동·부라티야·자바이칼·이르쿠츠크 지역 사회·경제 발전전략'에 맞추어 우리의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.
 - 1단계인 2015년까지 비교적 경제발전 가능성이 높은 극동자바이칼 지역의 남부(블라디보스토크 등)를 중심으로 중점 개발될 예정
 - 2단계 이후(2016~25년)에는 러시아의 교통 및 에너지인프라 확충사업과 관련된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질 예정

【환 상 허】